



KOREA NATIONAL COALITION OF THE HOMELESS

전국홈리스연대 창립1주년 기념 토론회
주거취약계층 실태파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모색

일 시 : 2010. 12. 21 (화) 15:00~17:00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최 : 전국홈리스연대

후 원 :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o Affairs

진행순서

14:30~15:00	등 록
15:00~16:20	<p>1부 : 주거취약계층 실태 파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김수현 교수 (세종대) • 발표 : 거리 노숙인 현장조사의 접근성과 개방성 요인 현시웅 처장 (전국홈리스연대) • 지정토론 : 양종수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장) 이태진 (보건사회연구원) 이형운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김승우 (게스트 하우스)
16:20~17:00	<p>2부 : 전국홈리스연대 1주년 기념총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사업 및 경과보고 : 김의곤 조직국장 • 2010년 교육사업 보고 : 오범석 정책국장 • 2011년 활동방향 보고 : 현시웅 사무처장
17:00	폐 회

주제발표

거리 노숙인 현장조사의 접근성과 개방성 요인

현 시 응 (전국홈리스연대 사무처장)

거리 노숙인 현장조사의 접근성과 개방성 요인*

현시웅(전국홈리스연대 사무처장)

이 논문은 거리노숙인 현장조사(참여관찰, 심층면접)를 실시할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인과 방안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조사 사례가 빈약하여 본 연구에서는 엘리트 면접조사를 논의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엘리트와 거리노숙인은 극히 상반되는 계층의 사회집단이나, 접근하기 어렵고 면담 시 개방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조사대상자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거리노숙인 현장조사 경험에 의하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 조사의 주기성, 조사 시기, 조사기간, 조사장소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 형성, 허용적 태도, 조사대상자 성향의 고려, 사회적 유대관계의 파악, 이동 경로 파악, 특별한 활동의 공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엘리트 면접과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조사자의 성별이 이성인 경우 접근성과 개방성이 높다는 주장은 거리노숙인 조사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숙인들의 노숙원인이 가정폭력이 주를 이루는 것과 노숙생활 중 남성노숙인에게 당한 부정적 경험이 가중되어 남성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핵심 용어: 노숙인, 참여관찰, 심층면접, 접근성, 개방성

* 본 연구는 2009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권 제1호에 실렸던 원고를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I. 연구배경과 목적

인간에게 주거의 부재는 생존조건 상실의 의미이며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 개인의 삶을 파괴한다. 한 인간이 노숙의 상태(homelessness)로 생활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차원에서 노숙생활은 건강, 식사와 영양, 범죄노출, 자살 등에 이르게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노숙인 문제는 공공시설의 무단점유, 비 위생, 구걸, 범죄, 폭력 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1998년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된 노숙인¹⁾ 문제는 민·관이 적극적으로 노숙인 보호사업에 참여하면서 응급개입은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노숙인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으며 여성노숙인 문제, 청소년 노숙인 문제, 가족노숙인 문제 등으로 그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노숙인 집단²⁾ 중에서도 거리노숙인(street homeless) 문제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거리노숙인은 고정적인 주거지가 없고,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조사대상자에 비해 접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집단이다. 또한 거리노숙인은 외부자와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다.

현장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는 홈리스, 노인, 청소년 동성애자 등과 같이 힘없고 밖으로 드러나기를 꺼려하고 자신들의 복지에 대한 논의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혹은 제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다(Padgett, 1998).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과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한 현

-
- 1)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노숙인 및 부랑인보호가 명시되었고(제34조 제4항) 보건복지부령 제307호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이 공포되었다. 이 규칙에 의하면 ‘노숙인(露宿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노숙인(homeless)집단을 현행 우리나라의 정의를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거리노숙인, 쉼터이용노숙인, 부랑인으로 구분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른 집단과 달리 시설에서 보호받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거리노숙인의 조사에서 나타난 접근성과 개방성 요인의 검토에 국한한다.

장조사는 세심한 관찰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한 조사방법이지만 조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접근성과 개방성의 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거리노숙인의 현장조사에서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의 경험적 사례들을 통해 거리노숙인 집단의 현장조사에 있어 접근성과 개방성의 영향요인을 논의의 근거로서 본 연구에서는 엘리트 면접조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의 노숙인에 대한 현장조사의 방법론적 선행연구가 빈약하기 때문이고 엘리트들도 속성상 스스로를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과 구분하고 외부인들의 관여를 극히 꺼리며 이들에게 접근하여 인터뷰 승낙을 얻기 어렵고 인터뷰에서도 전혀 개방적이지 않기(Odendahl and Shaw, 2001: 299-300) 때문이다. 따라서 거리노숙인과 비교, 논의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논의의 순서는 우선 엘리트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접근성과 개방성 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검토한 후 거리노숙인 현장조사 선행연구를 접근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어서 접근성과 개방성에 관해 두 가지의 거리노숙인 현장조사 경험적 사례를 제시한다.

첫 번째 사례는 2004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대구지역 노숙인 연간 실태조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이다. 이 조사는 매년 장마기인 7월 한 달 간 대구지역의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조사, 직업력, 노숙생활의 경험, 사회적 관계 등을 조사한 것이다. 또 하나는 1998년 9월 한 달간 실행된 노숙체험을 통한 완전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사례이다.³⁾

마지막으로 거리노숙인 현장조사의 사례를 앞서 엘리트 면접조사의 경우와 비교 검토하여 거리노숙인 현장조사의 접근성과 개방성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3) 10년 전의 조사이지만 거리노숙인의 생존조건에는 변화가 적기 때문에 현재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의 이론적 논의

1. 특정집단의 현장조사를 위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의 유용성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은 현장조사의 주요도구로서 각각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나 공개적으로 조사와 대면이 쉽지 않고 응답을 꺼리는 집단을 조사하는 데는 이들 두 방법은 의미가 부각된다.

참여관찰이란 조사 대상을 통제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걸쳐서 조사대상의 행태를 지켜보고 들으며 관찰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이며 조사대상의 특성, 언어적·비언어적 행위 등을 감각기관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다(이준형, 2004: 295). 반면 심층면담이란 조사자와 조사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조사자와 응답자 간의 면대면(face to face)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다른 조사방법과 구분된다(이준형, 2004: 285).

현장조사에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은 상호보완적이며 수레바퀴처럼 나란히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훈련된 관찰을 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이론화된 설명을 찾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관찰한 내용을 진하게(thick), 풍부하게(rich) 생성해내는 작업은 매우 고되고 노동집약적이다(홍용희, 1998: 116-119).

Morse와 Field(1995: 141)에 의하면 참여관찰방법은 연구의 폭을 넓혀주고 심층면담만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맥락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준다고 한다. 참여관찰은 연구대상자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 연구대상자가 논의할 수 없거나 논의하기를 원치 않는 화제들, 연구대상자의 처한 상황이나 전체 맥락, 실제 생활에서 확인해야 할 면담내용, 실제 상황을 직접 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면담내용, 연구대상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일상적 삶의 과정이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Merriam, 1988: 111).

그러나 참여관찰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나 관찰이 불가능한 행동, 호손효과, 선택적 관찰, 관찰자의 시·공간적 한계 등을 보완하기 위해 심층

면담이 필요하다. 심층면담은 관찰 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들, 연구자가 이해할 수 없는 관찰 내용, 관찰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조사대상자의 생각, 의도, 감정 등에 대해 알고자 할 때, 관찰 내용에 대한 조사자의 이해나 해석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실제로 유용한 정보 중 일부는 관찰 중에 행해진 비형식적 면담에서 나온 것(Platt, 2001: 103)이다.

심층면담에서 조사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목적을 지닌 대화를 심층적으로 이끌어내어 조사대상자의 주변세계의 사람, 과거 또는 현재의 사건, 상황들에 대한 감정, 생각, 의도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 직접들을 수 있어야 한다. 조사자는 심층면담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시각으로부터 발견과 통찰과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Adler and Adler, 2001: 524).

질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조사대상자의 인식과 언어를 항상 잡으려고 하는 것(Johnson, 2001: 105)이기 때문에 조사자는 대화를 촉진하지만 통합하려 하지 않아야 하며 응답을 꺼리는 조사대상자(reluctant respondent)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지칠 줄 모르며, 헌신적인 인상이 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민감한 대목(sensitive topic)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사자와 조사대상자와의 관계이다. 조사를 주저하는 조사대상자(reluctant)의 접근성이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소할수록 솔직한 관계, 신뢰성의 구축을 통한 관계 개선, 오랜 기간 동안 친밀한 관계⁴⁾ 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Adler and Adler, 2001: 525).

이상 현장조사의 주요방법인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조사대상자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조사에서 접근성과 개방성 관련요인은 조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관건이다. 엘리트 면접조사의 접근성과 개방성과 관련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4) 조사가 끝난 후에도 조사대상자와의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Johnson, 2001: 109).

2. 엘리트 면접조사의 접근성과 개방성의 관련요인

현장조사의 실제 과정은 조사대상자의 식별과 선정,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실제 면담 순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장조사에서 조사자의 자질과 능력이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조사대상자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의 논의도 필요하며 이는 경험과 사례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최희경, 2007: 414).

현장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가 적극적인 경우 접근성과 개방성에 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조사대상자들은 면접을 하기도 어렵지만 개방적이지는 않다. 특히 낮은 문화를 접촉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회조사에서 조사자는 이방인의 존재에 가깝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여야 보다 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조사자가 면담에 응한다고 해서 모두 사실을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관찰과 조사대상자의 내적 상황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지려면 개방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의 확보는 실제 현장조사에서 중요하다.⁵⁾

1) 엘리트 면접조사의 접근성 관련요인

일반적으로 엘리트란 한 사회에서 일반인들과는 구분되는 존재로서 많은 지식과 돈, 지위, 특권과 권력을 가진 이들로 사회적인 사안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로 정의된다(Odendahl and Shaw, 2001: 299-301).

엘리트 현장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를 식별하여 확정된 후에는 이들에 대한 연락을 시도하고 면담 승낙을 받아야 한다(최희경, 2005: 161). 면담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조사의 효용성과 중요성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시간이 소요된다. 조사대상자들에 접근하는 데는 조사자의 진실

5) 현장조사에서 조사의 윤리성이나 정보원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다(Johnson: 104).

성, 사회적 기술, 신중한 협상,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탄력적인 전략 등이 필요하다(Storch, 2000: 201). 일반적으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를 소개해주고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그 집단 내에서 신뢰를 받는 경우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조사의 초기단계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Adler and Adler, 2001: 506).

둘째, 조사자의 경력, 학력, 전문가적 배경, 조사자의 공식적 비공식적 소속단체 등도 중요하다. 연구자의 명성이나 소속기관에서의 지위도 면담의 승낙을 얻는데 영향을 준다. 또한 조사자가 이전부터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에 조사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임을 조사대상자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Odendahl and Shaw, 2001: 306-307).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조사대상자의 모임이나 이벤트에 참가하는 것, 조사대상자들에게 상품, 서비스, 선물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⁶⁾ 등이 있다.

넷째, 면접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때 조사자의 신원, 조사의 목적 및 용도, 기밀유지 등에 대한 약속이 서면에 명시되어야 한다(Mann, 1985: 149-150).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담장소, 면담일정(요일, 시간, 기간)을 조사대상자의 선택을 우선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보해주면 면담 시기를 연기하는 배려를 통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2) 엘리트 면접조사의 개방성 관련요인

조사에 응하기로 한 사람도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방성을 확보

6) 흔히 하위문화를 연구하는 현장조사자들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Earl Babbie, 2002, 고성호 외 공역: 348에서 재인용).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조사 경험 사례들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도 어렵지만 그들만의 장벽을 허물고 형식적이지 않은 솔직한 응답을 얻는 것이 더욱 어려우며 이 점이 성공적인 조사의 관건이라고 본다(Adler and Adler, 2001: 515).

심층면담에서 고려해야할 점은 조사자와 조사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rapport)의 구축을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개방성을 확보하여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면담에서 일반적으로 조사자와 조사대상자간에 친분관계(rapport)가 형성될 수 있다면 조사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신뢰성 있는 솔직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Johnson, 1975: 121).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조사자의 지위나 명성, 기술, 전문가적 양식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응답자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Czudnowski, 1997: 233-234).

조사대상자의 태도가 체제의 성격이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있어왔다(최희경, 2005: 163). 따라서 조사자는 조사대상자의 이데올로기, 문화, 환경 등에 대한 사전적 지식을 습득하거나 기존의 연구문헌을 통하여 체제의 성격이나 문화에 대한 선행학습을 함으로써 개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면담을 할 때 조사자가 어떠한 태도⁷⁾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국외연구에서도 이견이 있다.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와 면담할 때 정중함과 친절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전통적 견해와(Odendahl and Shaw, 2001: 311), 지나친 공손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Ostrander, 1995: 143-144)가 그것이다. 조사자는 조사대상자의 성, 연령, 지위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태도를 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조사자의 인구학적 특성도 개방성에 영향을 준다. 현장조사에서 성별이 영향을 강하게 미치며 조사자와 조사대상자 간의 연령차이도 주요한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Odendahl and Shaw, 2001: 313).

7) 현장조사자의 태도는 조사대상자의 사회과정에 얼마간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Hawthorne effect"로 불리는 이러한 영향은 종종 현장조사자에게 완전한 참여자와는 다른 객관적 관점을 취하도록 한다(Earl Babbie, 2002, 고성호의 공역: 352에서 재인용).

3. 노숙인 현장조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접근성과 개방성 검토

현장조사를 이용한 것은 서종균(1995), 안준희(2000), 최우림(2000), 김진미·서정화(2006)의 연구정도로 드물다. 이들 연구자들은 현장조사에서 접근성과 개방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대상 등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숙인 관련 선행현장 조사의 조사대상, 특성, 조사방법, 내용 등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선행 현장조사의 특성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내용
서종균(1995)	무료급식소, 쪽방거주자	1개월	참여관찰, 면접	물리적 환경, 고용조건, 주택소비, 사회적 관계
최우림(2000)	거리노숙인	2년	참여관찰, 면접	노숙생활자의 노숙기간별 변화
안준희(2000)	거리노숙인, 쉼터노숙인	약3개월	인지인류학적 접근	거리노숙생활의 생존전략
김진미·서정화(2006)	거리노숙인, 이용시설	8개월	면접	노숙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본 연구	거리노숙인	사례1: 2004-2008 매년 7월(5개년)	심층면접	생활양식, 직업관계 사회관계
		사례2: 1998년 9월	완전참여관찰	거리노숙인의 특성, 규모, 분포지역

서종균(1995)은 1995년 5월-7월(약 한 달)동안 영등포지역의 무료급식소와 종교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쪽방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거자를 면접하였다. 조사자는 조사대상지역인 영등포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관찰하고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동시장과 고용조건, 주택소비, 사회적 관계를 면담하여 조사대상자가 모든 조건이 가장 열악한 빈곤의 한 형태임을 지적하였다.

최우림(2000)은 약 2년간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장관찰과 종단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노숙기간이 길어질수록 노숙 만성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홈리스의 노숙력을 노숙초기, 노숙적응, 만성노숙으로 구분하였다. 최우림(2000)은 각 단계별 경험과 양상을 분석하여 노숙자의 노숙력은 노숙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대안 기제와 생존전략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활동, 복지자원, 사회적 관계, 인지의 영역은 상호 밀접한 관계로 얽혀 있고 인과적으로 변형되어 노숙자의 노숙력에 따른 경험들은 탈 노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안준희(2000)는 1999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노숙자다시서기 지원센터의 야간 상담활동과 1999년 12월말부터 2000년 2월초까지 노숙자 쉼터에서 참여관찰과 면담을 한 후 민족지적 연구(ethnographic research)를 인지인류학(cognitive ethnology)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내부자적 시각에서 해당문화의 행동체계를 그 자체의 관점에서 발견하고 기술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노숙자를 '거지'라는 일탈 인구 군으로 가정하고 '거지'라는 정체성의 영역과 얻어먹는 방법과 자는 장소라는 적응전략을 통하여 형성되며 이들의 중요한 문화적 주제(cultural theme)라고 주장하였다.

김진미·서정화(2006)는 거리노숙인의 사회적 관계 중 노숙동료 관계를 중심으로 약 6개월 동안 서울지역의 주요노숙지역과 일일이용시설에 있는 이용자 8명에 대하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하였다. 이들은 Spradley의 문화기술적 면접방법을 통하여 구조질문과 대조질문을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거리노숙이라는 문화 속에서 노숙인들 끼리의 유대는 새로운 고향의 의미, 인정받기위한 대체집단의 의미, 세계 내 구별을 통한 자기정체감 유지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며 이들 동료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은 이중적 성격을 띠며 이는 노숙이라는 극단적 빈곤상태의 삭막한 세계에서 생존과 자기존재감을 위한 동맹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의 경우 이동성 때문에 2차 면접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

이 연구들은 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외부자 중심, 관찰자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 현실에 비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홈리스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의 현장조사 연구들 중 서종균의 연구는 1개월의 조사기간으로 너무 짧고 조사자가 조사대상자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통하여 접근해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안준희(2000)의 연구는 연구자 자신도 밝히고 있듯이 직접노숙을 하거나 구걸을 하는 등의 완전참여관찰은 이루어 지지 못했고 노숙인 보호시설의 입소자들을 관찰하였다.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들은 시설내의 관리자나 동료들을 의식할 경우 개방성의 확보는 어렵다.

김진미·서정화의 연구는 면접한 노숙인들이 대부분이 노숙자 쉼터나 무료급식소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조사자가 누군가의 소개를 통하여 조사대상자에 접근하였기 때문에 선별적 관찰이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있고 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rapport)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되어 조사대상자의 개방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의 선행연구들은 조사대상자인 노숙인 집단에 접근성과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에서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현장조사의 두 가지 경험적 사례 중 첫째 사례는 매년 7월 한 달간을 조사기간으로 정하고 동일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매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가 가지고 있는 조사기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례는 조사자가 거리노숙을 1개월 이상 지속하면서 완전참여관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자의 존재를 조사대상자들이 의식하지 않아서 보다 접근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확보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오히려 조사자가 조사대상자

를 조사의 대상으로 전제하지 않고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을 공유하면서 조사자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완전참여관찰을 수행한 경험은 첫째 사례의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완전참여관찰 및 심층면접을 통한 두 개의 사례연구는 노숙인 집단 중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개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거리노숙인을 조사 대상으로 국한하여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보이며 조사기간도 매년 7월⁸⁾ 장마기를 선택하고 한 달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는 노력과 조사자가 직접 거리노숙 생활을 한 달 이상 하면서 조사대상자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노숙인 컴퓨터이용자, 무료급식소 이용자, 쪽방거주자 등 노숙인 집단 중에서 그나마 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국한 하는 경향이 있지만 본 조사는 특정 지역 거리노숙인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의 편협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Ⅲ. 거리노숙인 현장조사의 접근성과 개방성 경험 사례

이 논문은 거리나 공원, 역사에서 잠을 자는 거리노숙인들의 특성과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접근성과 개방성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경험적 사례를 들어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현장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논외로 하고 조사에서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접근성과 개방성과 관련된 논의에 국한한다.

두 개 사례 중 하나는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가 2004년부터 매년 7월 한 달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접근성과 개방성에 관한 경험이다. 또 하나는 1998년 9월 한 달간 대도시 지역의 거리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자가 직접 노숙체험을 통해 완전참여관찰을 수행한 것이다. 두 개의 거리노숙인 현장조사에서

8) 동절기 거리노숙인 조사는 단순히 거리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자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고 특정날짜의 특정시간대에 대구지역의 거리노숙인을 파악하고 있다.

나타난 접근성과 개방성 특징을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례 I : 대구지역 거리 노숙인 연간 실태조사를 위한 심층면담 사례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⁹⁾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7월 한 달간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¹⁰⁾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접근성과 개방성 측면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거리노숙인 심층면접에서의 접근성

조사대상자인 노숙인들은 고정적인 주거지가 없어 이동성이 강하고 대부분 연락수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조사대상자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노숙인의 접근성은 어느 정도 확보 할 수 있지만 거리노숙인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접근성을 확보하기 더욱 어렵다. 거리노숙인 현장조사에서 접근성관련 특징을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목적에 관한 명확한 설명은 접근성에 긍정적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숙인 정책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강제적 격리수용정책이었기 때문에 거리노숙인들은 자신의 신상을 조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¹¹⁾ 따라서 조사의 목적이 거리노숙인 들의 지원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9) 조사자는 2000년 4월부터 거리노숙인 지원기관인 노숙인상담지원센터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현장조사에서 조사자의 신분을 위장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조사자의 신분을 조사대상자인 거리노숙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조사자의 권력성에 관한 주의를 기울였다. 조사자는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조사 내용에 대한 철저한 정보보호를 약속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10) 심층면접의 내용은 인구학적 조사, 주민등록상태, 신용상태, 직업, 경제활동, 시설이용만족도, 욕구 등이다.

11)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노숙인들을 공공기관이나 경찰이 단속하여 부랑인복지시설에 강제 입소시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의 조사자에 대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존재한다.

둘째, 정기적인 조사는 접근성에 긍정적이었다. 2004년부터 매년 7월 조사를 실시하여 축적된 자료는 노숙기간의 산정이나 생활상을 비교 관찰 할 수 있게 하였고 특히 간헐적으로 거리노숙을 하는 사람들을 확인 하는데 유용하였다.

셋째, 조사 시기의 적절한 선택은 접근성에 긍정적이었다. 7월은 장마기이기 때문에 거리노숙인들의 이동반경이 좁아지는 특성이 있다. 장마로 거리노숙인들이 옥외보다는 공공역사나 터미널 등의 공간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거리노숙인조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동절기의 경우 추위를 피해서 노숙인들이 실내공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식별성은 높아지지만 동료 노숙인이나 외부인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진다.

넷째, 한 달 이상의 조사기간은 접근성에 긍정적이었다. 대표적인 노숙인 조사 방법은 정해진 날에 전역의 거리노숙 장소와 임시보호시설의 이용자 수를 파악하는 방법(point-in-time-counts)과 특정기간 동안 노숙을 경험했던 사람의 수를 조사하는 방법(period prevalence counts)이 있다. 전자를 이용한 노숙인 조사는 그 수를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거리노숙인의 조사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후자는 간헐적으로 노숙하거나 처음 노숙에 이른 사람의 경우 조사자가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조사지역의 적절한 선택은 접근성에 긍정적이었다. 거리노숙인의 밀집지역인 무료급식소와 대구역, 동대구역,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교통지역과 신천변, 금호강변의 교량주변, 국채보상공원, 2.28기념공원, 경상감영공원, 망우당 공원 등의 도심 내 공원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거리노숙인이 생활하는 구체적이고 은밀한 장소를 알기 위해서 거리노숙인이 있을 만한 장소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거나 전통적으로 거리노숙인이 머무는 곳으로 확인된 장소를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특히 동대구역과 대구역의 무료급식이 끝난 직 후 식사를 끝낸 거리노숙인이 자신의 은신처로 가는 경우 함께 가기를 요청하고 거절하면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요청하는 집요함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노숙인은 지속적으로 거리노숙생활을 하기보다는 거리노숙과 임시거주지를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공간에 대한 고려가 접근성을 높이는 방

법이다. 쪽방, 만화방, 24시간 사우나, 황토방, 아는 사람의 집, 친지의 집 등이 거리노숙인의 임시거주 공간인데 저렴한 이용료를 낼 수 있는 경우나 동료들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여섯째, 성별 구분은 접근성에 부정적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성 간 인터뷰의 효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리노숙인 현장조사에서 여성 거리노숙인의 경우 조사자가 남성일 경우 면담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 거리노숙인이 주로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거나 거리노숙상황에서 남성의 노숙인 들로부터 다양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어 남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적대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리 여성노숙인의 경우 위생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남성 홈리스들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적응전략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 거리노숙인의 경우 조사자가 직접 심층면담을 하지 않고 여성 직원이 면담하도록 하였다.

2) 거리노숙인 심층면접에서의 개방성

조사대상자인 거리노숙인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민감한 주제(sensitive topic)에서는 더욱 그렇다. 가족관계, 범죄경력, 신용상태, 혼인관계 등 조사대상자가 응답을 회피하거나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는 경우 조사의 가치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거리노숙인 심층면접에서의 개방성에 관한 경험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리노숙인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단계에서부터 신뢰관계(rapport)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생활의 어려움이나 고민들을 상담을 통하여 해소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문제들을 들어주는 노력을 하였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범위는 주소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고령, 장애, 질병에 놓인 거리노숙인도 수급자로 전환될 수 없다. 이런 경우 임시주거비지원을 통하여 주민등록을 복원하고 수급자로 전환하는 사업을 통해서 거리노숙인의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개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고정적

주거지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는 거리노숙인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조사대상자가 가장 편안하게 인식하는 장소에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거리노숙인의 이동경로는 주로 무료급식소, 쉼터나 상담보호센터 등의 노숙인 지원시설, 병원, 공사현장, 구제금을 주는 사찰이나 교회, 친구의 집 등이다. 물론 거리 유대관계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는 여러 명이 특정의 문제에 대하여 면담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개인 진술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개인별 성향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노숙인의 개인적 특성을 유심히 관찰하여 적극적인 성격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스스로 개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 대상자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조용한 곳에서 면접하는 방법을 취했다.

거리노숙인의 개방성은 개인별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나이가 적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개방성의 정도가 높고, 전과가 있는 사람일수록 가구원이 많을수록 개방성은 떨어진다. 어떤 상황이라도 연구자는 응답자에게 편안한 면접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넷째, 삶의 경로를 파악함에 있어 응답자 개인의 전성기적 상황에 대한 질문을 면담의 시작단계에 함으로서 개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령이 비슷한 경우에는 그 시기의 사회적 경험의 공유범위를 확인해봄으로서 응답자의 사회적 위치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거리노숙인의 유대관계(relationship)를 파악하여 개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노숙인 들의 유대관계는 과거 노동현장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 고아원 선후배, 거리노숙 장소에서의 친분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대관계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리노숙인과 접촉함으로써 면담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었다.

여섯째, 노숙인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노숙인의 과거직업이 건설일용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도 이와 유사한 노동을 통하여 돈을 벌기 때문에 이들의 은어들을 면접에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함바, 대가리, 오야지, 소쿠링 등은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언어이며

꼬지, 난장 등은 거리노숙 생활자들의 언어이다. 노숙인의 언어를 활용하여 친밀도를 높이고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

일곱째, 민감한 주제(sensitive topic)에서는 보다 허용적 태도를 취하거나 면접을 다음으로 미루어 개방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노숙인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측면은 신용상태, 결혼여부, 전과 등에 관한 질문들이었다.

2000년 이후 정부는 내수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소득수준이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노숙자를 유발하는 것이 되었다. 다수의 노숙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면서 일정부분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는 경향이 강했고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조사대상자 본인의 책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경우 사실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였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질문에 대한 응답의 진실성이 의심될 경우 시간적 차이를 두어 다시 질문하거나 다른 용어를 이용하였다.

여덟째, 조사자가 노숙인 지원기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들은 권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노숙인 들과의 친밀한 관계(rapport)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권력성 측면은 상호 신뢰 및 원만한 관계로서 극복하고자 하였다.

2. 사례Ⅱ: 거리 노숙인의 완전참여관찰 사례

조사자는 1997년 11월 IMF구제금융체제로 노숙인 문제¹²⁾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노숙인 지원시설이 개설되기 시작한 1998년 6월부터 노숙자쉼터의 실무자가 되었다.¹³⁾ 노숙인을 이해하는 방법은 직접 이들과 같은 상태에서 생활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노숙체험을 결정하였다.

1998년 9월 한 달간 서울, 인천, 수원, 안양, 대전, 부산, 포항, 전주, 울산, 경주 등지에서 실제 거리노숙을 하면서 노숙인을 관찰하고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현장조사는 완전참여관찰방법을 선택하였고 조사자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 거리노숙인과 동일한 경험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현장조사를 시행하던 시점이 노숙자 쉼터의 실무자로 활동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구지역은 제외하고 서울지역에 집중하여 노숙체험을 하고자 하였다.

현장조사방법이 완전참여방법이었기 때문에 현장기록용 쪽지와 배낭이외에는 소지하지 않았다.¹⁴⁾ 관찰한 내용을 미리 준비해간 수첩에 일자와 시간, 그 지역의 특성과 노숙인들의 규모, 분포상황, 노숙인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노숙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화장실이나 사람의 시선이 없는 공간에서 기록하였다.

1) 거리노숙인 완전참여관찰에서의 접근성

1998년 9월 한 달 간 거리노숙을 하면서 실시한 현장조사의 경험을 조사대상의 접근성 측면에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시기를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998년 9월은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여서 거리노숙을 하기에는 추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추석

12)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와 함께 실업과 파산이 줄을 잇고 극한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넥타이를 맨 노숙자가 나타났다”는 방송이 MBC PD수첩에서 방영되면서 노숙자 문제를 새롭게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3) 초기문화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3개월을 이용자와 함께 생활했다.

14) 노숙체험을 결정한 날부터 아침을 거르고 수업을 길렀다. 거리노숙인은 적어도 굶주림에 익숙해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리고 신분증과 휴대폰, 여비 없이 출발했다.

이 다가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추위와 명절에 대한 거리노숙인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실제로 추석을 부산에서 보냈는데 노숙인의 심리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조사 장소를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거리노숙 장소, 쉼터, 쪽방, 무료급식소, 교회 등의 구제금을 주는 곳¹⁵⁾, 일자리 현장 등 다양한 장소를 관찰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조사지역 내에서의 도보, 무임승차를 통해서 이동하였고 지역 간은 경찰서에 가서 차비를 얻어서 이동하였다.

셋째, 조사 지역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조사지역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인 서울, 인천, 수원, 안양, 대전, 부산, 포항, 전주, 울산, 경주이다. 중소도시를 현장 조사하는 이유는 그 당시 홈리스 문제가 대도시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소도시에도 홈리스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조사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접근성의 높이고자 하였다. 그 간 노숙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았고 기간도 길어야 1주일 정도이며 집단을 이루어 실시되었기 때문에 혼자서 1개월 이상을 거리노숙을 하면서 현장조사를 하였다.

다섯째, 거리노숙인의 이동경로를 동행하면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분야의 초보자인 조사자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홈리스 중 한 명에게 동행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다. 이동경로를 서울지역만 소개하면 서울역¹⁶⁾, 용산역¹⁷⁾, 연세세브란스 병원¹⁸⁾, 서소문 공원¹⁹⁾, 남산, 뽕땀 백화점²⁰⁾, 석촌

-
- 15) 도착한 곳은 00교회이다. 교회의 문은 잠겨있었고 바리케이드 같은 것을 쳐놓고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500원짜리 동전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 16) 1998년 9월 1일 12시 43분에 서울역에 도착했다. 새벽의 서울역은 여기저기 노숙자들이 모여 있거나 대합실 의자, 구석진 곳에서 박스를 깔고 잠을 청하고 있다. 서울 역사를 빠져 나오니 더 많은 노숙자들이 보인다. 서울역사와 주변에만 600여명은 넘어 보인다. 지하도 양 옆으로 노숙자들이 점령했고 행인들은 그곳을 지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9월의 차가움보다는 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 17) 용산역 광장에서는 무료급식을 하는데 서울역에서 도보로 도착하니 500여명은 넘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섰다. 10분 후 뒤를 돌아보니 다시 50여명이 뒤에 줄을 서었다.
 - 18) 세브란스 병원 건물 벤치가 놓여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수많은 노숙자들이 헝클어진 모습을 잠을 청하고 있었다. 시간이 새벽두시를 넘고 있었다. 연세세브란스 병원 앞 공터에 신문을 깔고 누워 있는데 중년의 신사가 조사자의 신상에 대하여 물어보면서 밥 한 그릇을 사주겠다고 제의하여 근처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였다. 그는 계속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다.
 - 19) 서소문 공원은 평온해 보였다. 수 십동의 텐트가 보이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어느 종교단체라고 한다. 그들의 집회는 40분이 지나고 있었고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빵과 우유가 주어졌다.

호수 등이다. 거리노숙인의 이동경로는 주로 음식을 구할 수 있거나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잠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 한정된다.

여섯째, 노숙인을 지원하는 상담소를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서울 역에는 노숙인을 위한 이동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곳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노숙인 쉼터의 위치나 입소규정에 관하여 알 수 있었다.²¹⁾

일곱째, 거리노숙인의 유대관계를 파악하여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서소문 공원에서는 노숙인들 간의 유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거리노숙인의 유대관계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²²⁾

2) 거리노숙인 완전참여관찰에서의 개방성

1998년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은 접근성이나 개방성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이 진행되었고 연구자가 노숙인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완전한 참여자로서 즉, 노숙인 동료로서 생활한 것이 개방성을 높였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험을 검토해볼 수 있다.

첫째, 직접 거리노숙인으로 생활하면서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미 개방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었다.²³⁾ 조사대상자들이 조사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노숙생활에 조사자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람들이 불평과 비난을 한다. 빵을 손에 쥐고 “이것 주려고 사람들을 한 시간이나 종교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말이다.

- 20) 두 시간을 기다렸다. 빵의 포장지에는 “남기는 사람이 있으면 빵을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다.
- 21) 상담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서울지역의 노숙자 지원정보를 알 수 있었다. 상담원이 다른 단체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등본이 없으면 입소가 불가능하고 종교적 통일성도 요구한다고 해서 이러한 제약이 없는 곳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량리에 있는 가나안교회나 영등포에 있는 광야교회는 신분증이 없어도 입소가 가능하다고 알려줬다.
- 22) 서소문 공원에서는 취한 사람들 간의 싸움과 폭력 등으로 거의 매일 소란이 있었다. 9월 7일 하루는 조사자 역시 한 사람 사태에 관여 되었다 오히려 그 후 몇 사람들과 친분관계가 두터워져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 23) 용산역에서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무임승차를 해서 석촌호수로 갔다. 석촌호수 맞은편 수산시장에서 공사장에서 쓰는 작은 철사와 고등어머리를 얻어 호수에 방생된 청거북이를 몇 마리 잡아서 근처의 수족관에 한 마리당 3천원에 팔았다. 청거북이를 판돈으로 끼니를 때우며 대화를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늘 가난하게 살아왔고 이제 일용노동도 없으니 얻어먹을 수밖에”라고 한다.

보인다.

둘째, 조사대상자들과 특별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개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거리노숙인은 무료급식이나 구제금을 받기 위한 활동에서는 개별성을 보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 협동²⁴⁾해야 하는 경우에 개방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지역에 따라 개방성의 정도와 개방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달랐다. 서울지역의 경우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부산이나 인천은 낮은 얼굴에 대하여 공격적인 적대감을 표출하지만 일단 얼굴을 알리고 나면 오히려 친밀성이 높아진다.²⁵⁾

넷째, 이미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 개방성의 확보가 용이 하였다.²⁶⁾

다섯째, 노숙인 문제에 적극적인 행동하면서 개방성의 정도를 높일 수 있었다. 주로 무료급식 장소나 노숙인이 군집한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경우이다.²⁷⁾

24) 동행한 두 사람과 새벽 2시경 은행나무가 많은 남산 근처의 도로변으로 이동했다. 은행나무를 흔들어 은행을 주웠다. 그들의 손에는 공업용 장갑이 있었다. A가 “이것을 공원 음수대에 가서 씻으려면 이 장갑이 없으면 손이 망해”라고 한다. B는 은행을 최대한 무게가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하여 물에 담가놓았다가 킬로그램 당 만원에 근처의 가게에 팔았다.

25) 남대문경찰서에 가서 귀향여비를 지원받아 부산으로 내려갔다. 부산역 구석진 곳에 박스를 구해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한 사람이 위협조로 내 자리이니 비켜달라고 한다. 맞대응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친분이 생겼는지 대화가 시작되었다.

26) 노숙자쉼터에서 지내다 사라진 D를 부산역 무료급식소에서 만났다. D는 근처의 쪽방에 지내며 같이 가자고 한다. 부산역 앞의 후미진 골목을 돌아 00여인숙이라 쓰인 간판이 있는 집이었다. D는 그간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보름이 넘는 시간동안 벽이 있고 문이 있는 곳에서 처음으로 잤다.

27) 조사자가 부산에 갔을 때 부산역 분수대에서 잠을 자는 건강이 나빠 보이는 E를 만났는데 3일이 지나고 물었다. “어디가 아프세요?” “마음이 아파”한다. 그는 다음날 새벽에 비가 오는 차가운 분수대에서 생을 마감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홈리스들이 모이고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부산일보에 노숙자가 비를 맞으며 부산역 분수대 옆에서 사망했다고 전화했다. 부산시청에 항의 전화를 했다. 노인은 기자가 당도하기 전 119구급차에 후송되었다.

IV. 거리노숙인 현장조사의 접근성과 개방성 요인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트는 일반인과 다르다는 인식과 자부심을 가진 존재로서 실제로 복잡하고 다양한 일정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가 조사의 승낙을 받기 어렵다. 특히 이해관계나 정치적 결정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경향이 있다.

이와 반대로 거리노숙인은 사회의 낙오자라는 인식과 사회적 반감, 열등의식, 심각한 손상에 대한 개인적 경험 등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일정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타인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집단이다.

이처럼 두 집단은 매우 다른 상황과 인식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해도 개방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거리노숙인 현장조사의 경험이 적은 현실에서 엘리트 면접에서 나타난 접근성과 개방성 요인은 거리노숙인 현장조사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현장조사의 특성을 조사대상자의 접근성과 개방성관련 선행연구(엘리트 면접조사)들에서 나타난 요인을 비교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접근성 관련 요인

II장의 엘리트 면접조사의에서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접근성 요인들은 조사대상자의 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면접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 소개자의 조사 집단 내 신뢰성, 조사자의 명성이나 소속기관에서의 지위, 조사대상자들의 활동에 적극 참여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엘리트 면접조사에 비해 거리노숙인 현장조사의 접근성은 거리노숙인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소개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조사대상자들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조사자가 거리노숙생활을 하지 않는 한 어렵다. 또한 조사대상자

의 거처와 일정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개방성 요인은 효력을 상실하기 쉽다.

따라서 거리노숙인 현장조사에서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가 고정적 주거지가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조사 시기, 조사지역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조사를 통하여 얼굴을 익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하여야 한다.

특히 엘리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사자의 성별이나 연령대가 조사대상자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거리노숙인의 조사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거리노숙인 중 여성은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피해 거리생활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거리노숙 중에 남성의 노숙인으로부터 다양한 위협을 경험하기 때문에 남성을 기피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거리노숙인 현장조사에서 남성조사자가 여성노숙인을 면담하기는 특별한 라포가 형성되지 않는 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사대상자의 개방성 관련 요인

접근성에서와는 달리 엘리트 면접조사와 거리노숙인 면접 조사의 경우 개방성 요인은 친밀한 관계의 구축, 조사대상자의 문화, 환경에 대한 지식, 조사자의 태도, 조사대상자와 조사자간의 성별, 연령차이 등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접근성 요인에서처럼 거리노숙인 조사에서는 남성조사자가 여성노숙인을 조사하는 것의 한계에서와 같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거리노숙인 집단의 유대관계를 파악하거나 개인적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친분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거리노숙인 들은 신용불량, 주민등록 말소, 범죄경력,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민감한 대화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듣

기 위해서는 신뢰관계를 형성하여야 가능하다. 노숙인과의 신뢰관계 형성은 조사자의 명성, 지위, 전문가적 배경이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거리노숙인 현장조사에서 개방성 요인에서 조사자의 전문가적 배경보다는 조사자의 태도가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거리노숙인 집단의 유대관계나 직업적 특성에서 형성된 은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조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집단에 비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와 지속적인 관계의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V. 결론

1990년대 말 경기후퇴에 따른 대량실업을 경험하면서 우리사회에서 거리노숙인(street homeless)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노숙인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외부자적 시각에 의존하고 특정한 대책이나 프로그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 현장조사들도 조사기간, 조사대상자의 편협성, 조사대상자와의 관계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장조사는 조사자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양적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조사대상자의 태도와 행위의 미묘한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그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어 그 유용성이 높다. 그러나 효과적인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거리노숙인은 일정한 거처가 없고 이동성이 강하고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개방성이 떨어지는 집단이다. 엘리트 집단도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인식과 자부심을 가진 존재로서 실제로 복잡하고 다양한 일정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가 조사의 승낙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나 공개적으로 조사와 대면이 어려운 집단을 조사하는데 유용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접근성과 개방성의 확보는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엘리트 면접 선행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접근성관련 요인으로 조사대상자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의 집단내의 위치 및 신뢰성, 조사자의 경력, 학력, 전문가적 배경, 조사자의 공식적, 비공식적 소속단체, 연구자의 명성, 공식적인 면접 요청서의 전달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방성관련 요인으로 조사대상자의 태도, 체제의 성격이나 문화, 조사대상자와의 친분관계 형성, 인구학적 특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거리노숙인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현장조사의 주요방법인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에서 접근성과 개방성 문제를 두 가지의 거리노숙인 현장조사의 경험 사례를 들어 논의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2004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대구지역 노숙인 연간 실태조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이다. 이 조사는 대구지역의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조사, 직업력, 노숙생활의 경험, 사회적 관계 등을 매년 장마기인 7월 한 달 간 현장에서 실시하였고 또 하나는 1998년 9월 한 달간 실행된 노숙체험을 통한 완전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사례이다.

조사대상자의 접근성과 개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두개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가지의 경험사례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의 접근성에 영향요인은 이론적 논의에서 검토되었던 조사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 조사의 주기성, 조사 시기, 조사기간, 조사장소 등의 요인들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사시기를 장마기로 선택하는 것이 접근성을 높였으며, 조사지역의 집중적인 조사와 반복성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사대상자의 이동 경로 파악, 조사대상자의 성향의 고려, 허용적 태도, 친밀한 관계 형성, 사회적 유대관계의 파악, 특별한 활동의 공유 등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의 개방성은 개인별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나이가 적을수록, 자신의 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개방성의 정도가 높고, 전과가 있는 사람일수록 가구원이 많을수록 개방성은 떨어진다. 또한 거리노숙인의 유대관계(relationship)를 파악하는 것이 개방성을 높일 수 있다. 거리노숙인의 유대는 과거 노동현장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관계나 고아원 선후배, 거리노숙 장소에서의 친분 등으로 이루어지며 유대관계에서 영향력 있는 조사대상자와 접촉함으

로써 면담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지지하고 있는 조사자의 성별은 우리나라의 거리 여성노숙인 조사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는 여성 노숙인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 가정학대인 것과 노숙생활에서 남성 노숙인에게 다양한 폭력을 경험하여 모든 이성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 거리노숙인의 조사는 동성의 조사자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을 통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현장조사 사례는 첫째 사례의 경우 조사대상 지역이 대구에 한정되어 있고 둘째 사례는 심층면접보다는 참여관찰에 치중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두 가지 사례는 거리노숙인 조사의 실제에 유용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숙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노숙인의 욕구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욕구조사 자료의 구축을 목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유경. 2001. “노숙자에 대한 지역사회 태도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진미. 2003. “거리노숙 만성화 요인 연구-서울지역 거리 노숙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김진미·서정화. 2006. “거리노숙인의 유대형성에 대한 문화기술지: 삭막한 세계의 동맹자 만들기”. 한국사회복지학, 58(3), pp.57-79.
- 남기철. 2000. “노숙기간에 따른 심리사회적 외상이 보호시설 퇴소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2001. 대구지역 쪽방 실태조사 보고서.
- _____. 2004. 대구지역 노숙인 실태조사 보고서.
- _____. 2005. 대구지역 노숙인 실태조사 보고서.
- _____. 2006. 대구지역 노숙인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서.
- 서종균. 1995. “무주거자 면접기: 영등포역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7, pp.77-102.
- 안준희. 2000. “노숙자의 생활양식에 관한 인지인류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준형. 2004. 조사방법론. 서울: 대영문화사.
- 최우림. 2000. “노숙자의 노숙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최희경. 2005. “엘리트 면접 조사의 대상자 접근에 관한 사례 연구: 의료 정책결정과 정의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4(3), pp.155-181.
- _____. 2006. “연구 정직성과 정보원 비밀보호의 양립방안 모색”. 한국행정학보, 40(3), pp.1-25.
- _____. 2007. 한국의 의료갈등과 의료정책. 지식산업사.

- 현시웅·김동원. 2005. “노숙인의 집단별 특성에 따른 지원체계의 수립”. 정부학연구, 11(2), pp.123-151.
- Adler, P., and Adler, P. 2001. “The reluctant respondent”. In Jaber F. Gubrium and James A. Holstein(eds.), *Handbook of Interview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 pp.515-535.
- Arthurson, K., and Jacobs, K. 2003. *A Critique of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and its Utility for Australian Social Housing Policy*. 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London(Paper presented at the UK Housing Studies Association Conference, Bristol).
- Czudnowski, M. M. 1987. “Interviewing political elites in Taiwan”. In G. Moyser and M. Wagstaffe(eds.), *Research Methods for Elite Studies*. London: Allen & Unwin Publishers, pp.232-250. 최희경. 2005. “엘리트 면접 조사의 대상자 접근에 관한 사례연구: 의료 정책결정과정의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4(3), pp.155-181.에서 재인용.
- Gubrium, Jaber F. & Holstein A. James. 2001. *Handbook of Interview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
- Johnson, M. John. “In-depth interviewing”. In Jaber, F. Gubrium and James, A. Holstein(eds.), 2001. *Handbook of Interview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 pp.103-119.
- Mann, Peter. H. 1985. *Methods of Social Investigation*. Oxford: Basil Blackwell. 최희경. 2005. “엘리트 면접 조사의 대상자 접근에 관한 사례 연구: 의료 정책결정과정의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4(3), pp.155-181.에서 재인용.
- Merriam, B. S. 1988. *교육학의 질적 사례 연구법*(허미화 역). 서울: 양서원, 홍용희. 1998.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 교육과학 연구, 28: pp.113-129.에서 재인용

- Morse, M. J. & Field, A. P. 1995. 질적 간호 연구방법(신경림 역).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출판부. 홍용희. 1998.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8, pp.113-129.에서 재인용.
- Odendahl, T. & Shaw, A. M. 2001. “Interviewing elites”. In Jaber F. Gubrium and James, A. Holstein(eds), *Handbook of Interview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 최희경. 2005. “엘리트 면접 조사의 대상자 접근에 관한 사례 연구: 의료 정책결정과정의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4(3), pp.155-181.에서 재인용.
- Padgett, D. K. 1998.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유태균 역). 나남출판.
- Platt, Jenifer. “The History of interview”. In Jaber F. Gubrium and James A. Holstein(eds.), (2001). *Handbook of Interview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 pp.33-58.
- Storch, M. (2000). “Computers and Qualitative Data Analysis: to use or not to use?”. In D. Bueton(ed.), *Research Training for Social Scientists*. London: Sage Publications, pp.226-243. 최희경. 2005. 엘리트 면접 조사의 대상자 접근에 관한 사례 연구: 의사 정책결정 과정의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14(3): pp.155-181.에서 재인용.
-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http://www.homeless.or.kr>>
-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http://dghomeless.or.kr>>.

How to approach and interview the Homeless in Field Research

Hyeun, See-Woong(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accessibility and openness of field research which employed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as study methods. The study purposes to find factors of accessibility and openness of the homeless.

The homeless has a few features such as non-fixed residences, high level of mobility, anti-social behaviour and disgusting oneself. The results suggests following: ① a purpose of research be understood by the survey participant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② survey timing,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respondent were important factors of the field research. ③ The respondents traces, their personality, a researcher's gender, rapport also influenced the openness of the respondents.

Key words: homeless, participant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 accessibility, openness

1주년 기념총회

2010년도 전국홈리스연대 사업 및 경과보고

김 의 곤 조직국장

2010년도 전국홈리스연대 사업 및 경과보고

□ 조직구성

◎운영위원

- ▶ 쉼터 : 문정순(행복한 우리집 대표)
- ▶ 상담보호센터 : 박요한(부산노숙인지원센터 소장)
- ▶ 쪽방상담소 : 윤승걸(대구쪽방상담소 소장)
- ▶ 옹호단체 : 이동현(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 연구 :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선임연구원)
- ▶ 의료 : 주영수(한림의과대학 교수)
- ▶ 여성홈리스 : 서정화(열린여성센터 소장)

◎자문위원

- ▶ 유영우(사단법인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이사)
- ▶ 정태효(성수삼일교회 내일의집 대표)
- ▶ 이기표(부산보현의집 대표)
- ▶ 유낙준(대전성바우로의집 대표)

◎감사

- ▶ 윤건(거리의천사들 총무)
- ▶ 이범승(민들레가족 대표)

◎사무국

- ▶ 사무처장 : 현시웅(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소장)
- ▶ 정책국장 : 오범석(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무국장)
- ▶ 조직국장 : 김의곤(대전홈리스지원센터 소장)

□ 모임에서 출범까지

2009년 초부터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홈리스시설 실무자, 단체대표, 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8차례의 모임을 갖다.

◎2009.1.16 전국 노숙인을 위한 민간협의회 준비를 위한 1차 모임

서울에서 모여 전국 홈리스 시설의 대표 또는 현장 활동가 13명이 모여 민간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기로 함.

◎2009.2.13 전국 노숙인을 위한 민간협의회 2차 준비모임

서울에서 모여 (준)전국홈리스협의회 명칭으로 협의회를 준비하기로 결의함.

◎2009.5.12 (준)전국홈리스협의회 3차 준비모임

서울에서 모여 협의회의 목적과 방향성을 논의함. 임시사무국을 두고 그 역할 및 현안 문제 논의함.

◎2009.6.25 (준)전국홈리스협의회 4차 준비모임

대전에서 모여 독자출범 및 사단법인의 적절성, 창립총회 일정, 카페개설 등에 대하여 논의함.

◎2009.7.22 (준)전국홈리스협의회 5차 준비모임

서울에서 모여 창립총회 일정, 예산 마련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운영위원 및 사무처장, 정책국장, 조직국장을 선출하고 향후 준비모임은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준비하도록 결의함.

◎2009.9.17 (준)전국홈리스협의회 6차 준비모임(1차 운영위원회)

- ▶ (준)전국홈리스연대로 명칭확정
- ▶ 창립총회에서 세미나 실시하기로 결의
- ▶ 운영위원을 보강하고 임시사무국 사무국장 3인의 역할분담 논의

◎2009.11.11 (준)전국홈리스연대 7차 준비모임(2차 운영위원회)

- ▶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준비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

◎2009.12.1 (준)전국홈리스협의회 8차 준비모임(3차 운영위원회)

- ▶ 창립총회 세부사항 확정, 행사명을 “전국홈리스연대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로 확정하고 준비사항 및 역할분담 논의

□ 창립총회

◎일 자 : 2009년 12월 15일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석자 : 49개 단체, 69명

◎내 용 :

□1부 정책토론회

- ▶ 주제 : 경제위기 이후 각국의 홈리스 정책 동향
- ▶ 발제 1 : 일본 홈리스 정책의 동향 / 김수현(세종대학교 교수)
- ▶ 발제 2 : 한국 홈리스 정책의 동향 / 남기철(동덕여대 교수)
- ▶ 토론 1 : 남철관 /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 ▶ 토론 2 : 현시웅 /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소장
- ▶ 토론 3 : 이원기 / 행복한우리집 총무
- ▶ 토론 4 : 신원우 / 협성대학교 교수

□2부 창립총회

- ▶ 경과보고
- ▶ 단체 및 조직소개
- ▶ 창립취지문 낭독
- ▶ 2010년 사업계획 보고
- ▶ 정관확정

□ 운영위원회

◎1차

□일 자 : 2010년 1월 22일

□안 건 :

- ▶ 자문위원 구성 및 방법 논의
- ▶ 운영위원 보강 승인
- ▶ 2010년 임시주거지원사업 대책 논의

- ▶ 회원단체 및 회비 확보 방안 논의
- ▶ 전국주거복지협의체 참여여부 논의
- ▶ 감사 선임 논의

◎2차

□일 자 : 2010년 3월 18일

□안 건 :

- ▶ 전실노협 홈페이지 도메인 확보의 건
- ▶ 자문위원 및 감사 위촉 승인
- ▶ 여성홈리스, 의료분야 운영위원 위촉 승인
- ▶ 전국주거복지협의회 참여 승인
- ▶ NCK에서 지원하는 실무자 교육훈련 논의
- ▶ 전국 홈리스 실태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전방문 논의

◎3차

□일 자 : 2010년 5월 14일

□안 건 :

- ▶ 실무자 인권교육 계획 보고 및 승인
- ▶ 홈리스시설-지역교회의 간담회 개최 논의 후 사무처 위임
- ▶ 홈리스 실무자 교육 훈련팀 구성 및 교육프로그램 계획보고 및 승인
- ▶ 서울시 홈리스지원조례 제정 기획단 참여 논의 후 정책국장 참여 승인
- ▶ 홈페이지 구축 제안

◎4차

□일 자 : 2010년 7월 9일

□안 건 :

- ▶ 교육위원회 사업진행 보고 및 사무국 활동보고

◎5차

□일 자 : 2010년 11월 16일

□안 건 :

- ▶ 사무국 및 교육위원회 활동보고
- ▶ 전국 거리홈리스 실태조사 진행사항 보고 및 발표회 방법 및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움 일정논의
- ▶ 재원마련을 위한 CMS 후원개발 방법 논의 후 비영리단체 등록 승인
- ▶ 2011년도 전국홈리스연대 사업 추진방향 논의

□ 사무국 활동

◎홈리스법 제정 관련 :

- ▶ 홈리스복지법추진위원회(위원장: 정원오) 활동 시작
- ▶ 11월 5일 민노당곽정숙 국회의원실 홈리스법 관련 간담회 참석(현시웅, 김의곤)

◎주거복지협의회 관련 활동 :

- ▶ 2010년 4월 전국주거복지협의회 준비위원회 구성
- ▶ 12월 9일~10일 전국주거복지협의회 워크샵(대전 장태산 휴양림 / 현시웅, 김의곤, 박요한, 김승우 참석)

◎인권교육 관련 :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2차에 걸쳐 인권교육 수행했으며, 2011년에도 교육 실시 예정임.

- ▶ 1차 : 2010년 6월 17일~18일 / 54명 참석
- ▶ 2차 : 2010년 6월 24일~25일 / 42명 참석

◎전국홈리스실태조사 관련 : 보건복지부에 전국홈리스실태조사를 제안하였고, 계획(안)이 나왔으나 복지부의 계획 취소로 자체조사 실시.

- ▶ 일자 : 1차-10월 20일 / 2차-10월 27일
- ▶ 대상 : 거리생활자, 쉼터생활자
- ▶ 지역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천안, 강릉
- ▶ 방법 : 야간 11:00~12:00까지 Point-in-Counting을 실시.

◎임시주거지원사업 관련 활동 :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전실노협이 간사단체를 맡아 수행하던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가 인수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7월 1- 2일: 임시주거지원사업 워크샵(덕바위 녹색체험마을)

▶12월 2일 : 임시주거지원사업 워크샵(경주)

◎전실노협 홈페이지 도메인 확보 : 전실노협이 폐쇄되면서 전실노협이 운영하던 www.Homeless.or.kr 홈페이지 도메인을 인수받아 확보함.

◎CMS 후원개발 관련 활동 : 연대의 조직이 회비수입에 의존하기 어려움이 있어 CMS 후원개발을하기로 결의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영리단체 등록을 추진중.

▶단체등록을 위해 대표가 필요하나 대표를 두지 않기로 한 홈리스연대의 특성상 서류상 임의대표를 김의곤 조직국장으로 하고 비영리단체 등록을하기로 함.

1주년 기념총회

2010년 전국홈리스연대 교육사업 결과보고

오 범 석 정책국장

2010년도 전국홈리스연대 교육사업 결과보고

□ 조직

I 교육위원회

- 교육운영위원장 : 서종균 박사
- 교육운영위원 : 배경임(NCCK 선교훈련원부장), 서정화(열린여성센터장), 오범석(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무국장)
- 교육위원회 간사 : 이원기(NCCK선교훈련원 간사)

II 전국홈리스단체 실무자교육 훈련팀

홈리스 실무자교육 훈련팀			
연번	분야	이름	소속
1	팀장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2	자원봉사	배경임	NCCK 선교훈련원
3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4		윤 건	거리의천사들
5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6	사례관리	이원기	NCCK 선교훈련원
7		이형운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8		이승연	서울시정신보건센터
9	중독	문정우	열린여성센터
10		서경숙	비전트레이닝센터
11		오범석	나눔과미래
12	일자리	문미라	성북·강북·노원구 자원봉사자협회장/ 금융·관광업 전문 컨설턴트
13	신규실무자교육	현시웅, 김의곤	사무처

□ 교육사업 성과

I 실무자교육 훈련팀 교육

1. 교육내용 및 일정

훈련팀 교육 일정표					
횟수	날짜	주제	내용	강사	진행자
1	5/18	훈련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	참여형 교육방법론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동일
2	5/25	쟁점과 대안에대한 집담회 (1) - 정책분야	노숙인복지 12년사의 쟁점과 대안	서정화(열린여성센터)	이원기 (교육간사)
3	6/1	자원봉사	홈리스문제와 자원봉사, 시민교육방법론	고상준 (시민교육에듀)	동일
4	6/8	쟁점과 대안에대한 집담회 (2) - 특화분야	중독, 정신, 만성, 청소년/여성홈리스	김민수(한국도시연구소) 정선영(한국재활복지대학)	현시용 (전홈연사무처장)
5	6/15	상담과 사례관리	아웃리치, 여성, 자활센터	민소영(경기대)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6	6/22	일, 사회적기업	대안적일자리, 안식, 신용회복	김준희(한국도시연구소) 박진수(광진자활) 김경민(에스페이스) 이형운(동자동주민)	오범석 (전홈연교육국장)
7	7/7	교육 총화	자체평가 및 각 파트별 교육프로그램 확정	서종균	현시용 (전홈연사무처장)
8	10.28~30	제주도 워크샵	훈련팀 단결 및 소통 / 교육프로그램확정	없음	오범석 (전홈연정책국장/교육위원)

2. 훈련팀 교육 총화록

□ 훈련팀 교육 총화모임

- 일 시 : 2010년 7월 7일 오후 3시 ~ 6시
 -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 701호
 - 주 관 : 전국홈리스연대
 - 참여자 : 총 13명 중 11명 참석(서정화님, 김선미님 - 서울시노숙인조례 준비모임으로 불참)
1.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집단슈퍼비전
 - 양식을 준해서 작성치않음으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 실천적부분에 비해 이론적부분이 약하다.
 - 홈리스자원봉사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때 내용이 흥미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교육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자원봉사자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이를테면 급식/예배/아웃리치 자원봉사자들
 - 자원봉사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봉사자의 태도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 10여개 정도의 큰 시설이외에는 나머지 소규모시설은 자원봉사교육을 들을수 있는 여력이 없다.
 - 무료급식소와 같은 경우는 파견교육 진행해야 할 필요도 있다.
 - 실제적인 사례(알코올중독, 정신과질환, 도박, 응급대처)에 이야기 필요
 2. “상담 및 사례관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집단슈퍼비전
 - 총 8주라면 교육 일정이 너무 길다. 특히 사례관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 가장 기본적으로 일정이 빠져있다. 그리고 각 회기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강사진이 빠져있다. 급변 교육훈련팀 교수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 모든 교육일정을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
 - 사례관리는 각 시설마다 너무 여력이 없다.
 3. “중독(정신건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집단슈퍼비전
 - 기존 중독프로그램과 홈리스시설 실무자 중독교육프로그램과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 상담 및 사례관리에서의 사례관리 강의는 중독 교육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이니깐 조정해서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중독에 관심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해야 함.

4. “사회적기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집단슈퍼비전

- 1안은 홈리스시설 실무자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이론 교육이며 2안은 성공회대학 사회적기업교육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1안에 대한 내용에 동의를 함.

- 국내 사회적기업 내용에 대한 사례교육 필요

- 1안의 교육이라면 기존 사회적기업가 교육의 참가하면 되지않을까 싶다.

- 강의식 교육보다는 견학식, 사례위주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사회적기업 투어교육

- 사회적기업의 역사를 봐야한다. 특히 기존 사업들이 포기한 실패사례를 살펴야 한다.

- 사회적기업이 돈버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경쟁, 마케팅에 관한 접근보다는 국가적으로 대결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 학교와 지자체와 연결을 통해 산학협력등과 같은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5. “신규실무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집단슈퍼비전

- 첫날 프로그램은 1박2일로 가져가야 서로간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다.

- 1회 프로그램이 사전워크숍이어서 자칫 의견수렴을 해놓고 이미 정해놓은 대로 한다면 신규실무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 이렇게 짠 이유는 최소 3개월이상 경험 신규실무자들이 현장에서의 짧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자 욕구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 신규실무자교육은 5년이상 근무한 중견실무자들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게 함으로 중견실무자들에게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신규실무자들과 번아웃 실무자들에게는 위기를 넘기는 경험나누기를 통해 지친마음의 대안을 찾고 자기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 회기가 많다.

6. 전체코멘트 - 서종균박사

- 각 분야의 목표와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걱정이다. 오히려 서로간의 칭찬과 만족도 해야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

- 훈련팀이 아직은 네트워크정도이지 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번 교육프로그램은 실패를 경험할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실패할 준비가 필요하다. 바로 이때 교육팀을 위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팀 지원구조)
 - 기술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하나는 예상인원을 불명확함, 또하나는 교육내용과 방법론이 다양하지 못하다. 참여형 교육법을 통해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금번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녹아내리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 인터넷상을 통한 널리 홍보도 필요하다.
 - 앞으로의 과제는 팀의 관계와 팀의 지속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
7. 교육훈련팀 협의사항
- 일정과 예산을 구체화하고 지역안배도 필요함.
 - 강사료는 20만원이내로 정함.
 - 7/8일까지 각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수정정보완료

□ 전국홈리스간담회 개최

I 목적

- 취지 : 노숙인복지사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계의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종교의 역할과 기존 사회복지계의 만남을 통해 노숙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의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 일시 : 2010년 8월 31일(화) 오후 3시 ~ 6시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

○ 간담회 사회/ 안하원 목사(일하는 예수회 회장)

발제 1. “한국사회복지 속에서 홈리스복지현황 및 전망”/ 남기철 교수(동덕여대)

2. “전국홈리스연대의 창립과 방향”/ 현시웅 사무처장(전국홈리스연대)

3. “홈리스복지의 교회참여현실과 그 대안”/ 오범석 교육국장(전국홈리스연대)

논찬 : 이승열 총무, 이수근 사관, 여재훈 신부

- 발제와 논찬

2011년도 전국홈리스연대 교육사업 계획(안)

I 실무자 교육프로그램(안)

홈리스 실무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비교분석					
연번	자원봉사	상담 및 사례	중독	일자리	신규실무자교육
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자원봉사자(각회기 2시간) 1. 기초과정 4회기(20명) 2. 심화과정 3회기(20명) ■ 실무자과정(각회기 2시간) 1. 기존실무자 1회 2. 신규실무자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시설의 상담교육 - 2박 3일(8명 내외-3년이상) ■ 거리노숙인 상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및 중독교육 - 2박3일 ■ 심화교육 및 슈퍼비전 -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박3일 (12~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박3일 (20명)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정 (일정: 미정, 추후공고) ■ 심화과정 (일정: 미정, 추후공고) 실무자과정은 기존강의에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노숙인 상담교육 - 2011년 상반기(봄) ■ 쉼터노숙인 상담교육 - 2011년 하반기(가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및 중독교육 - 2011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상반기(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상반기, 하반기(2회)
예산	<p><지출> 일반과정교육 중심 ■ 총액 2,790,000원 (장소비 후원, 제외)</p>	<p><수입> 교육참가비 400,000원 <지출> ■ 총액 3,160,000원 (장소비 후원, 제외)</p>	<p><지출> ■ 총액 2,320,000원 (장소비 후원, 제외)</p>	<p><수입> 교육참가비(8만원 *32=2,560,000) <지출> ■ 총액 5,000,000 (장소비 후원, 제외)</p>	<p><수입> 교육참가비(3만원 *20=750,000) <지출> ■ 총액 4,750,000 (장소비 후원, 제외)</p>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강사 배경임, 김선미, 윤건 ■ 외부강사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강사 서정화, 이형운, 조부활 ■ 외부강사 민소영교수 외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강사 이승연, 문정우, 서경숙 ■ 외부강사 정선영교수 외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강사 문미라, 오범석, 조부활 ■ 외부강사 이은애, 김성기, 송경용, 모세중, 이원재, 제윤경, 남철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강사 준비위원회, 사무처 외 ■ 외부강사 없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식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시설 상담 -합숙형 2주, 강의식 4주 ■ 거리노숙인상담 -강의식 4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식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식 및 워크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식 진행 마지막날 합숙형 1박2일 진행

※ 일부 교육프로그램은 재조정될 수 있음

II 세부사업계획

1.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 제 목 : “홈리스와 이웃하기”

○ 교육대상

- 홈리스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홈리스를 돕고자 하는 일반인(대학생, 일반인, 종교인, 노숙경험자 등) 약 20~30명 정도

○ 교육목표

-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 홈리스분야의 자원봉사와 홈리스현장을 경험함으로써 홈리스와 홈리스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임.

-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본인에게 적절한 홈리스지원 활동분야를 찾아내도록 하며,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해 가는 초석을 마련함.

○ 교육내용

- 자원봉사에 관한 일반이론 : 자원봉사의 의의와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습득함.
 - 홈리스분야에서 현재 실천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소개함.
 - 홈리스에 대한 이해 : 홈리스 발생의 원인, 홈리스의 규모와 양상, 홈리스에 대한 정의, 홈리스 서비스 지원체계, 홈리스와 인권 등을 소개함.
 - 홈리스 현장에 대한 이해 : 노숙현장(거리, 쪽방 등)을 방문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 체험하도록 함.
- * 큰 내용 틀은 아래와 같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방식은(주 1회 혹은 2회, 1회차를 한시간씩 2회로 진행할 지 등) 중·고등학생, 복지전공 혹은 빈곤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생, 종교인, 직장인 등의 욕구에 따라 변경해야 함.

회차	주제	세부내용	비고
1	자원봉사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에 대한 일반이론 - 홈리스분야에서 현재 실천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소개(급식, 아웃리치, 옹호활동내용과 관련단체 및 기관 등 소개) 	참가자의견나누기 (포토스탠딩활용 등) 동영상, 사진 활용
		담당) 홈리스자원봉사자 교육팀	2시간 소요
2	홈리스는 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리스의 정의, 규모, 원인, 양상 등 - 현행 지원체계(현행 이용 및 입소 시설 소개)에 대한 이해와 노숙인 복지의 쟁점 간략히 정리 - 여성, 청소년, 아동 등 hidden homeless에 대한 문제 공유하기 	이론중심 홈리스에 대한 다 큐 보기
		담당) 홈리스자원봉사자 교육팀	2시간 소요
3	홈리스로 산다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리스와 관련된 주거권(사생활확보가 되지 않는 현재 시설현황 등), 건강권, 노동권, 범죄의 표적이 되는 현실 등 거리생활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 이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상황 등 소개 	거리생활의 어려움을 담은 동영상(학생의 노숙인 폭행)과 사진(공안의 인권침해 등 해외사례 포함)소개
		담당) 홈리스자원봉사자 교육팀 + 외부강사	2시간 소요

4	주요 노숙 지역 및 지원 기관 투어 및 노숙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에배상항,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방문 - 거리노숙인이용시설(상당보호센터), 쉼터(자활, 재활), 쪽방밀집지역, 매입임대주택(가능하면) 등에 방문. - 노숙체험 : 거리, 쪽방 등에서 노숙체험하기 or 노숙인으로 하루 살기 	<p>각 기관별 하는 일들에 대해 소개, 당사자가 동행하여 노숙현장 체험, 체험후기 나누기 “선택형”</p>
	담당) 홈리스자원봉사자 교육팀 + 외부활동가 및 단체 연결	<p>기관방문시 만나 절소요 노숙체험시 1박2 일소요</p>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활동과 노숙인복지실천의 연결점 찾기 - 실무자들의 자원봉사자 필요도를 찾아 연결하기 - 아웃리치 매뉴얼 만들기(인사, 구결에 대한 대응, 도움주기, 복지제공처알리기 등) 	<p>교육사업의 후속 활동내용으로 생 각하고 있음.</p>	

○ 기대효과

-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및 거리생활상(극한 빈곤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로서 노숙인분야에 대한 역할을 찾을 수 있음.(예 - 본인의 생활권 내 거리노숙인 수 파악이나 서비스 지원체계등에 관한 모니터링)
- 참여 기관 및 단체간 연대 모색 - 현장투어 시 각 기관 및 단체의 실무진이 적극 참여, 협의과정을 통해 기관 혹은 단체간 교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홍보방식

- 노숙밀집지역 내 학교, 종교기관, 대학 내 사회복지학과, 대학내 사회봉사동아리, 기타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등을 중심으로 홍보함.

○ 기타

-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시 서비스제공처 등을 소개할 수 있도록 수첩이나 매뉴얼 구성이 사전작업으로 필요함.

○ 예 산

수 입				지 출			
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강사비	150,000원*6명	900,000원	
				보조진행비	5만원*12명	600,000원	
				다과비	5,000원*30명	150,000원	
				교육자료비	3,000원*50부*4회	600,000원	
				기관방문시선물비	20,000원*7개	140,000원	
				예비비		400,000원	
합계						2,790,000	

2. 상담 및 사례

상담 및 사례관리 교육프로그램

제목(분야) : 상담 및 사례관리

교육참여자의 교육욕구 및 필요성

- 노숙인 복지시설 실무자들의 기본업무는 상담이지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실제 상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상담을 진행하는데 있어 노숙인에 대한 이해와 대상특성에 따른 상담이 필요함
- 특히 노숙인은 무기력, 만성화된 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실무자의 실무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기획의도

- 그 동안의 상담교육은 일회적인 교육으로 회기별 상담 또는 사례관리를 진행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 또한 50-60명의 집단교육으로 개별적인 상담개입시 각각의 상담원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함.

- 소규모 그룹교육을 통하여 상담원 각각 진행했던 상담사례를 발표하면서, 상담원 동료들간의 수퍼비전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상담개입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대상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이에 대한 수퍼비전 제공

□ 대상 및 인원

- 1차 교육 : 노숙인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대상 : 노숙인쉼터 상담관련 경력 3년 이상자
- 2차 교육대상 : 거리 노숙인 상담
 교육대상 : 거리노숙인 상담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 교육규모 : 8인 정도의 소규모 그룹

□ 교육 목적 및 목표

- 목적 : 노숙인관련 상담가들의 상담역량 증진
- 목표 : 상담가로서의 자세와 상담 기법 숙지
 대상특성에 맞는 상담 및 사례관리 개입의 효과 증진

□ 교육일정 및 세부 교육프로그램

- 1차 : 쉼터 노숙인 상담

회기	날짜	교육제목	내용	강사	교육형태
1	2박 3일	상담에 대한 이해	상담이란? 상담의 기본자세 등	서정 화	합숙형
2		노숙인에 대한 이해	노숙원인, 노숙 특성 등		합숙형
3		대상별 상담 특성 이해 I	자활지원대상, 재활지원대상	미정	강의 및 토론
4		대상별 상담 특성 이해 II	여성 및 가족		강의 및 토론
5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필요성		합숙형
6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개념,기능,과정 이해		합숙형
7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실제 적용		강의 및 토론
8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실제 적용		강의 및 토론

- 2차 : 거리노숙인 상담

회기	날짜	교육제목	내용	강사	교육형태
1	2박 3일	상담에 대한 이해	(상담가의 자세 등)	서정화	합숙형
2		노숙인에 대한 이해	노숙원인, 노숙 특성 등		합숙형
3		대상별 상담 특성 이해 I	거리상담의 특성 I	이형운	
4		대상별 상담 특성 이해 II	거리상담의 특성 II	이형운	강의 및 토론
5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필요성	미정	강의 및 토론
6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개념,기능,과정이해		강의 및 토론
7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실제 적용		강의 및 토론
8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실제 적용		강의 및 토론

교육장소 및 교육형식

- 8명 정도의 소규모 교육
- 토론 구조로 좌석배치
- 기독교 회관(현재의 교육 장소 사용)

평가방법 :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홍보방법 : 각 시설에 공문으로 공지, 홈리스 연대 홈페이지 공지

예산

수 입				지 출			
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교육참가비	50,000원* 8명	400,000 원		강사비	150,000원*8회	1,200,000원	
넥지원		2,760,00 0원		워크샵비	200,000*9명	1,800,000원	
				기타비	20,000*8회	160,000원	
				계		3,160,000원	

* 위 교육은 1회 교육시에 드는 비용입니다.

3. 중독

3강 중독(정신건강) 교육프로그램

□ 제목 : 건강한 사람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 필요성

1. 홈리스 정신질환 및 중독 문제 개입에 대한 실무자 요구도 증가

: 홈리스 중 많은 대상자의 정신질환 및 중독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는 거의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실무자들의 정신질환 및 중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과 중독에 대한 교육 욕구 증가.

2. 슈퍼비전을 통한 지역사회 소통의 기회 확대

: 상담보호센터 및 관련기관의 서비스 개입과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아울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여 자원의 활용도를 최대한 극대화 하도록 함.

□ 기획 의도(목적) : 홈리스 대상의 정신질환 및 중독 서비스 제공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대상 및 인원

- 대상 : 홈리스 관련 시설 실무자

- 인원 : 최소 10명 - 최대 15명

□ 교육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

1. 정신건강 및 중독 교육

회기	일시	주제	강사	교육형태	전달방식
1	1일차 오전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중독 훈련팀	강좌	시각적+강의 듣기
2	1일차 오후	실천 사례에 대한 수퍼비전	중독 훈련팀	강좌 + 논의	발표+ 강의듣기
3	2일차 오전	중독의 이해	중독 훈련팀	강좌	시각적+강의 듣기
4	2일차 오후	실천 사례에 대한 수퍼비전	중독 훈련팀	강좌 + 논의	발표+ 강의듣기
5	3일차 오전	심화 교육 및 실천사례에 대한 수퍼비전	중독 훈련팀	강좌 + 논의	발표+ 강의듣기

□ 교육시기, 교육 장소 및 좌석배치

- 교육 시기 : 봄(4월), 가을(10월) 각 1회씩 진행
- 교육 장소 : 연수원 등
- 좌석배치 : 동그랗게 강사뿐만 아니라 교육 참석자들 모두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배치

□ 평가방법 : 사후 설문조사

□ 홍보방법

- 관련기관 홈페이지 및 관련 카페 홍보
- 메일, 전화 및 문자 홍보

□ 예산

지출			
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강사료	15만원*6인	900,000	
진행요원	5만원*6인	300,000	
다과/식사	15인*1만*4회	600,000	
교육재료	3만원*4회	120,000	
예비비	예비비	400,000	
합계		2,320,000	

별첨1. 각 회기별 세부 교육안

각 회기별 세부 교육안					
일시		장소		담당	
시간	1일차 오전 1일차 오후	주제/회기	1회기 /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2회기 / 실천사례에 대한 수퍼비전		
목표 및 과제	<p>교육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 습득 - 정신질환 노숙인에 대한 이해 및 개입역량 증진 - 정신질환 노숙인에 대한 치료 및 서비스 연계에 대한 이해 <p>실천과제</p>				
교육 내용	<p>교육주제 세부내용(요약)</p> <p>1.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건강이란? 2) 정신장애의 종류 <p>①정신분열병 ②기분장애 ③불안장애 ④인격장애</p> <p>2. 정신질환 노숙인에 대한 이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질환 노숙인의 상황 및 특성 2) 정신과적 위기 및 대처방법 3) 올바른 법적 조치의 이해 4) 노숙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p>3. 실천사례에 대한 수퍼비전</p>				
기타	<p>강사(이력)</p> <p>교육훈련팀원 & 외부강사</p> <p>교재(참고자료) - 교육발제자료 첨부</p>				

각 회기별 세부 교육안					
일시		장소		담당	
시간	2일차 오전 2일차 오후	주제/회기	3회기 / 중독의 이해 4회기 / 실천사례에 대한 수퍼비전		
목표 및 과제	<p>교육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에 대한 지식 습득 - 각종 중독에 노출된 노숙인에 대한 이해 및 개입역량 증진 - 치료 및 서비스 연계에 대한 이해 <p>실천과제</p>				
교육 내용	<p>교육주제</p> <p>세부내용(요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독의 이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독이란? 2) 행위중독과 약물중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위중독 : 도박, 인터넷 등 ② 약물중독 : 알코올, 니코틴 등 2. 개입 및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정 : 중독문제 여부 확인 위한 척도 활용 및 상담 기술 - 치료 종류 - 지역 자원 및 서비스 체계 3. 실천사례에 대한 수퍼비전 				
기타	<p>강사(이력)</p> <p>교육훈련팀원 & 외부강사</p> <p>교재(참고자료) - 교육발제자료 첨부</p>				

4. 일자리(사회적기업) 프로그램

일자리(사회적기업)교육 프로그램

□ 제목 : 사회적기업가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 교육참여자의 교육욕구 및 필요성 :

1.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의 자활 및 창업에 관심이 있는 종사원
2. 계층과 상관없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의 문제에 대안을 원하는 사회복지사
3. 일자리 관련 창업프로그램 및 일자리 프로그램을 실천할 의욕이 있는 종사자

□ 기획의도(자질, 역할, 비전) :

1. 사회적기업을 실제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
2. 종사자의 마인드를 사회적기업가로 전환하여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조력자로 양성
3. 노숙인쉼터뿐 아니라 독립적으로도 사회적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할 수 있는 실무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함

□ 대상 및 인원 :

-일정: 2010. 2월 18일~

-모집인원: 16명(최저 12명~ 최대 20명)

-모집조건: (1) 대상: 노숙인쉼터 종사자 및 빈곤계층 자원봉사자

(2) 지역: 서울 8명, 그 외지역 8명

(3) 경력우대: 자활사업장 및 창업프로그램 경영자

-교육시간: 금요일 18:30 ~ 21:30

-교육참가비: 8만원

□ 제 1차 교육일정 및 세부 교육프로그램

회기	시간	교육제목	내용	강사	교육형태	전달방식	비공식 프로그램	시간
1	1교시	개강식	교육생 교류모임 및 사회적기업 가정신	오범석,문미라 (진행자)	오리엔 테이션	워크샵	-	2
	2교시	사회적기업 개요	전체개요	이은애교수(예정) (사)speed:S 혁신사업단장	워크샵 +강의	토론+ 프리젠테이션	팀구성(4인 1조)	2
2	1교시	사회적기업 심화학습	사회적기업 이슈와 쟁점	김성기(예정) (성공회대 외래 교수)	강의	청취/ 질문		2
	2교시	노숙인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전과 실패 사례	조부활 (벤엘의 집 사무국장)	강의	청취/ 질문		2
3	1교시	사회적기업 을 위한 기초교육 I	인증 사회적 기업 준비와 실행 사례 -사회적 기업 설립과 실무	미정	강의	청취/ 질문		2
	2교시	희망제작 소 사회적기업 학교 청빙	현재 진행중인 사업	경영자 섭외	프리젠테이션 +강의	청취/ 질문		2
4	1교시	사회적기업 을 위한 기초교육 II	사회적기업 경영이론	이원재(예정) (한겨레경제연 구소장)	강의	청취/ 질문		2
	2교시	국내사례	노숙인자활 사업	남철관 (주)나눔하우징	강의	청취/ 질문		2

5	1교시	사회적기업을 위한 기초교육 III	경제적 자립과 재무설계: 에듀머니	제윤경(예정) (에듀머니이사)	강의	청취/ 질문	2
	2교시	사례발표	지역사회와 사회적 기업 - 해외사례 (영국)	송경용 (성공회대 NGO인문대학 장)	강의	청취/ 질문	2
6	1교시	기획 맞보기	사회적기업 기획이론	문미라 (나눔과미래 활동가)	강의	청취/ 질문	2
	2교시	실습	사회적기업 프로포절 팀별 작성/발표	문미라	발표/ 워크샵	발표	3
	3교시	수료식	수료식 및 최종평가	교육국	팀별평 가		

□ 예산

수 입				지 출			
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KNCC	교육지원	2,440,000		고용지원 교육강사비_ (3강)	6주(강사11명)*2회*2명*20만원 (원고료포함) [강사: 사회적기업 전문가, 직업상담 사 각1명]	4,400,000	
수강료	자부담 1인당*8만원*32명	2,560,000		교육교재비	1만원*2회*20권	400,000	
				교육재료비	기타	200,000	
합계		5,000,000		합계		5,000,000	

5. 신규실무자교육 프로그램

신규실무자 교육프로그램

□ 제목(분야) : 홈리스와 함께 첫발뎀기(신규실무자 교육)

□ 교육참여자의 교육욕구 및 필요성

1년미만의 신규실무자들의 경우, 대상자의 대한 전이해 부족과 주어진 과다 업무로 인해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체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신규실무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현안에 쟁점과 그 대안, 홈리스복지의 비전을 만들어가야하는 필요성을 인식할수 있다.

1. 홈리스에 대한 이해

: 한국사회복지 영역으로서의 홈리스 복지의 위치와 그동안의 노력들을 짚어본다. 그리고 노숙인에 대한 오해를 짚어보고 이해를 도모한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자기정체성을 세운다.

2. 서비스 전달체계와 행정실무

: 거리아웃리치 -> 역상담소/상담보호센터/중간쉼터 -> 재활/자활쉼터 -> 자활의집/매입입대주택 -> 사회복지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와 인터넷(입퇴소절차, 상담기록, 다시서기수첩발급), 행정실무(공문수발신, 회계, 인사관리, 시설관리, 기타)에 대한 실무를 배운다.

3. 유관기관 소개 및 방문, 네트워크(온/오프라인)

: 지역별 홈리스 유관기관 중 유형이 다른 3군데를 선정하여 방문하여 그곳 시설사례를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카페를 소개하고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4. 홈리스복지의 쟁점과 대안... 그리고 비전

: 홈리스복지의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한국사회현실 속에서 홈리스복지의 쟁점과 대안을 진단한다. 그리고 홈리스 복지의 방향은 과연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가늠해 본다.

□ 기획의도(자질, 역할, 비전)

1. 자질측면 - 홈리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선택한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 지나온 홈리스복지역사를 짚어보도록 한다.
2. 역할측면 - 행정실무력을 높이고, 당사자와 실무자간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3. 비전측면 - 홈리스복지 방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자기비전을 설정한다.

□ 대상 및 인원 : 인원은 최저 20명 ~최고 30명(홈리스 활동경력 3개월 이상 2년 미만)
 대상은 활동경력 3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해당지역에 한하여 상근실무자/자원봉사자/당사자는 각각 구분하여 진행하며 신규실무자의 욕구와 관심을 모으기 위해 사전워크숍을 진행하여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교육일정 및 세부 교육프로그램

회기	날짜	교육제목	내 용	강 사	교육 형태	전달 방식	비공식 프로그램
1	2박3 일	신규실무자 사전워크숍	의견수렴 및 인사	미정	강좌형	토론+발표	저녁식사
2		홈리스란?	빈곤이해		강좌형	강의듣기/시각+ 토론+발표	없음
3		서비스전달체계	흐름과 중첩		강좌형	강의듣기/시각+ 토론+발표	없음
4		시설방문 타기관 교류근무	3개정도 (유형별)		강좌형	강의듣기/시각+ 스스로 행동하기	없음
5		행정실무	공문/회계/프로포질		강좌형	강의듣기/시각+ 토론+발표	없음
6		쟁점과대안	사회복지현 실과 대안		합숙형	강의듣기/시각+ 토론+발표	1박2일

□ 교육내용 및 강사

회기	교육제목	세부 교육 내용	참고자료	강사	비고
1	신규실무자 사전 워크숍	의견수렴 및 인사	photoshand->결정게임 거리두기, 신호등토론 모서리토론	미정	
2	홈리스란?	빈곤이해	사회배제적관점, 빈곤/주거 관점, 홈리스12년사	김유경 (예정)	
3	서비스전달체계	흐름과 중첩	노숙인매뉴얼(1권)	이수범 (예정)	
4	시설방문 및 타 기관교류근무	3개정도 (유형별)	상담보호센터, 재/자활쉼터, 매입입대주택	미정	
5	행정실무	공문/회계/프로포절	노숙인매뉴얼(2권)	이호영 (예정)	
6	쟁점과 대안	사회복지현실과 대안	노숙인복지론 노숙인과 사회복지실천	남기철 (예정)	수료 증 발 급

□ 교육시기, 교육장소 및 좌석배치

- 주제와 참여자에 맞는 교육시기와 교육장소 선정는 사전워크숍을 통해 재조정함.
- 각 팀별로 원형배치 후 강의자는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강의를 진행함.
- 시간은 9~10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평가방법 : 교육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매 회기)

□ 홍보방법 : 공문발송, 온라인홍보(홈리스관련 단체 홈페이지 및 카페), 이메일 발송,

1) 준비일정

1월	봄, 가을(예정)	봄, 가을(예정)	11월	12월
준비위원회구 성 온라인 홍보	교육참여자 모집	신규실무자 교육 실시	평가	후속모임

2) 준비위원회 구성

- 5인정도로 구성하고 5년이상의 실무경력자들을 위주로 구성하여 진행함.

□ 예산

수 입				지 출			
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KNCC	교회지원	3,000,000		강사료	20만원*6인	1,200,000	
전흠연	교육지원	1,000,000		보조진행	5만원*12인	600,000	
교육비	참여자부담	1,000,000	30*6	기관방문선물	2만원*10개	200,000	
				다과/식사	20인*1만*1회	200,000	
				교육재료	5만원*6회	300,000	
				워크숍	식사, 장소, 기타	2,000,000	
				예비비	예비비	500,000	
합 계		5,000,000		합 계		5,000,000	

□ 기타

- 상/하반기 년 1회~2회 진행함.
- 매 깃수 모임을 카페와 정기모임을 통해 온/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함

III 전국흠리스 실무자학교 개교(상위 교육프로그램 운용)

1. 교육형식

- ① 명칭 : 전국흠리스실무자 학교
- ② 조직 : 교장, 교무부장, 교학부장, 교수, 강사 선임
- ③ 결과 : 수료증 발급, 연차별 참석강의 기록

1주년 기념총회

2011년 전국홈리스연대 활동방향 (안)

현 시 응 사무처장

2011년 전국홈리스연대 활동방향(안)

현시웅(전국홈리스연대 사무처장)

I. 머리말

2009년 12월 15일 발족한 전국홈리스연대는 조직 구성의 원칙을 자발성, 공동대표성, 현장 중심성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2010년의 주력사업은 크게 정책사업과 교육사업으로 진행되었고 미진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던 한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홈리스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현장에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과제 또한 남아있다. 여기서는 2011년 전국홈리스연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활동의 개략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운영위를 통하여 구체화할 것이다.

II. 2011년 전국홈리스연대 활동계획(안)

2011년은 전국홈리스연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과 교육사업을 구체화하고 또한 정상화하는데 그 힘을 모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홈리스복지법 제정, 전국홈리스 실태조사 및 연구, 홈리스의 참정권 확보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홈리스 종사자 교육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홈리스 종사자 인권교육과 NCKK와 협력하는 종사자 교육으로 구체화 할 것이다.

1) 정책사업

(1) 홈리스복지법 제정운동

정책사업은 홈리스복지법제정운동을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현재 홈리스 복지법은 홈리스복지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의 성안작업은 완료된 상태이고 보건복지부의 자체안, 민중당안, 한나라당안 등 다각적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홈리스복지법추진위원회(위원장 정원오)는 1월 말 법안의 통과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견해가 수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전국 홈리스 실태조사

1998년 홈리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 특성에 대한 실증이 모자란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홈리스는 크게 거리홈리스, 쉼터홈리스, 쪽방홈리스, 비주택거주(PC방, 황토방, 만화방, 찜질방 등)홈리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0년은 전국의 상담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거리홈리스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전국의 상담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거리노숙을 경험한 홈리스를 추정하고 그 대안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2011년 1월 중으로 별도의 조사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연구는 홈리스연구회의 멤버를 중심으로 현장과 협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홈리스조사는 특정시점의 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적어도 반기, 나아가 분기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홈리스 조사는 조사의 주기성, 조사의 포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고 2011년에는 철도공사, 전국자율방범대협의회 등과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조사가 실행된다하더라도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전국홈리스연대는 2011년 홈리스 실태조사위원회를 연구자들과 현장단위가 결합된 유기적 형태의 가)홈리스 실태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3) 홈리스 참정권 확보운동

현행 참정권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홈리스는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지 못하는 집단이 상존하고 있어 참정권이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말소되었다하더라도 국민의 일원임을 부정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 선거권 정도를 확보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참여연대 인권센터 등과 공조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홈리스라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교육사업

홈리스 집단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의 역량은 홈리스 집단의 지원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종사자들의 역량강화는 당연한 것이다. 전국홈리스연대는 우선 홈리스 종사자 인권교육을 정례화하고 나아가 현장실무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사자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2010년은 홈리스의 특성에 기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현장경험이 있는 종사자들을 교육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홈리스종사자 교육훈련팀 교육을 선행하였다. 이것은 홈리스 현장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교육훈련팀은 향후 현장의 경험과 연구들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훈련팀을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될 것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홈리스 종사자 인권교육

홈리스 문제에 접근하는 첫 단계로 홈리스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2010년에는 2차에 걸쳐 홈리스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행하였고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 교육은 5월경에 실시하여 현장종사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시기를 선택하여 참여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홈리스 종사자의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수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홈리스 종사자 학교

홈리스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가 발생한다. 그 예로 주거, 고용, 심리재활, 알코올 중독 등의 각 분과에서 현장의 경험과 이론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홈리스 종사자학교는 NCK와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의 권역을 나누어 소집단 심화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Ⅲ. 꼬리말

1998년 홈리스 문제가 대두되고 2005년 제도화와 함께 지방화가 이루어졌다. 지방화 이후 전국적인 차원의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항상 있어 왔으나 2009년 전국홈리스연대의 창립과 2010년의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국홈리스연대는 현장성과 연대성을 기초로 전국홈리스 실태조사가 지금은 좁은 거리홈리스에 치중되어 있으나 향후 쉼터, 쪽방, 비주택거주자들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장종사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 중국에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홈리스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그 권리와 책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